

**경의선 용산-문산간 복선전철 제2공구
대통령 표창 수상**



우리 회사 김정성 부장이 7월 1일 경의선 1단계 구간(성산-문산) 개통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정성 부장은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음과 진동에 대한 각종 민원, 시설물 추가 설치로 인한 시공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민 협의와 협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공사를 수행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또한, 매월 4일을 안전환경의 날로 정해 현장 내 작업장과 주변 도로, 민가밀집지역에 대청소를 실시하고 일일 안전교육·안전회의·안전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일 안전시공 Cycle' 캠페인을 전개해 무재해 달성에도 기여했다.

**제 18회 도로의 날 행사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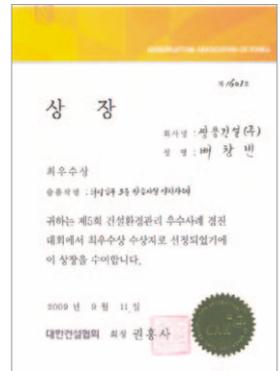


우리 회사 토목기술부 이승헌 부장이 7월 7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 18회 도로의 날' 행사에서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을 기념해 제정된 이날 행사에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 내·외빈 약 1,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도로 교통 발전에 기여한 관련업계 기술자 21명이 정부 포상을, 30명이 장관표창을 받았다.

한편 이승헌 부장은 소사-녹산간 도로 개설공사, 순창-운암간 도로 개설공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영동고속도로(신갈-원주) 4차로 확장공사, 경부고속도로 양재-수원간 8차로 확장공사, 대전-통영(진주-통영)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등 40여 건의 국내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 설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물류비용절감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2009년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토해양부장관상(우수상) / 대한건설협회장상(최우수상) 수상



건설환경협회 및 대한건설협회에서 주관하고 국토해양부, 환경부, 매경안전환경연구원, 대한주택공사에서 후원하는 '제5회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9월 11일 건설회관에서 개최됐다.

총 20개사 62개 작품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12개사 15개 작품이 본선 진출하여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본 경진대회에서 당사 중구회현동주상복합현장에서 출품한 '도심지공사 방진공 시공개선사례'가 국토해양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고, 소사-녹산간 도로현장에서 출품한 '터널입구 3중 방음시설 설치사례'가 대한건설협회장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년 경진대회에는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고위 공무원, 건설회사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사가 국토해양부 장관상(우수상) 및 대한건설협회장상(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됐다.

2009년도(제6회) 서울특별시 토목상 우수상 수상



우리 회사 김정호 전무가 9월 11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09년 서울특별시 토목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서울특별시 토목상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울의 도시기반시설 건설과 토목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이날 행사에는 토목사업본부 남궁상 상무 토목기술부 이기환 부장 및 본사 관계자 등 총 30명이 참석했다. 김정호 전무는 서울지하철 6호선 6공구, 서울지하철 5호선 39공구, 서울지하철 9호선 913공구 등 서울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하고 각각의 공사를 고 난이도의 신공법을 적용해 시공함으로써 토목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경주거문화대상 수상

우리 회사가 시공 중인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현장이 7월 9일 한국경제신문 본사 빌딩 18층 다산홀에서 열린 '2009년 상반기 한경주거문화대상' 시상식에서 해외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은 대한민국 해외 건설 역사상 최대 규모(6억8,600만 달러)의 건축 프로젝트로 우리 회사가 지난 2007년 일본, 프랑스, 홍콩 등의 세계 유수 건설사들을 물리치고 수주함으로써 화제가 됐다. 또한 7월 8일에는 지상 55층(200m)까지 골조공사를 마치고 전세계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속에 상량식(Topping Out Ceremony) 행

사를 진행하며, 52도 기울어진 현대건축의 기적으로 국내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한편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이날 시상식에는 16개 부문별 수상업체 관계자와 우리 회사 최용진 상무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현장 1개월 앞당겨 상량식 가져



우리 회사가 시공 중인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현장(Marina Bay Sands Hotel/소장·안국진 상무) 상량식이 7월 8일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앞당겨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 내 부지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개최된 상량식에는 김석준 회장과 김병호 사장, 발주처인 미국의 세계적인 카지노, 호텔, 리조트 전문개발업체 샌즈(Sands) 그룹 셸던 아델슨(Sheldon Adelson) 회장 등 관계자와 김중근 주싱가포르 대사, 윈타이(Wing Tai) 그룹 에드먼드 첵(Edmund Cheng) 회장 등 현지 유력 인사 외에도 현지 및 외신 기자 약 120명이 참석했다. 3개 동 총 2,600객실의 이 호텔은 각 동이 입(入) 자형 구조로 설계됨에 따라 지상에서 최고 52도 기울어져 올라가는 동측 건물을 지상 70m(23층)에서 서측 건물과 연결한 후 55층까지 건설하는 골조공사의 성공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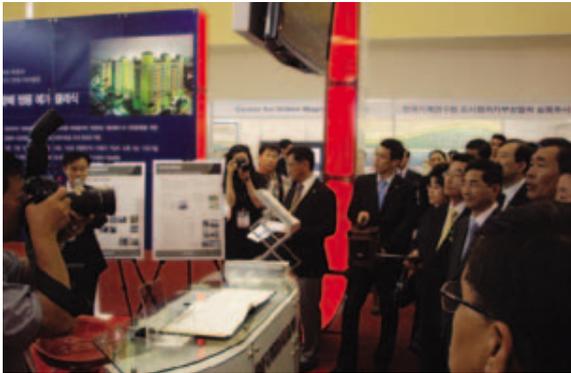
우리 회사는 피사의 사탑(5.5°) 보다 약 10배 더 기울어진 동측 건물의 경사도를 유지하기 위해 교량시공에 사용하는 포스트 텐션(Post-Tension)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지난 3월 서측 건물과 연결하는데 성공했다. 이후에는 하부 양 구조체 벽 속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고 서로 연결하는 트랜스퍼 트러스(Transfer Truss) 공법을 통해 상부에서 전해지는 막대한 수직하중에 의한 하부 두 구조

체의 변형문제를 해결했다.

현존하거나 현재 설계, 시공중인 건축물 중 최고 난이도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3~4일 만에 1개 층을 시공하는 일정으로 이 모든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예정보다 한달 이상 빠른 18개월 만에 골조공사를 완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골조공정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에는 2,500객실의 마감공사와 3개 호텔의 56~57층을 연결하는 축구장 약 2배 크기(12,000m²)의 스카이 파크(Sky Park)를 내년 초까지 완성하는 대역사가 진행된다.

한편 이 호텔은 싱가포르가 차세대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국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심형 복합 리조트인 마리나 베이 샌즈 복합 리조트(Marina Bay Sands IR : Integrated Resort)의 메인 프로젝트로 공사금액이 미화 6억 8,600만 달러(약 9천억 원)에 달하는 대한민국 해외 건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건축 프로젝트로 2010년 초 완공될 예정이다.

세계 신기술 대전 참가 및 전시



우리 회사는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100여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세계 신기술 대전'에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 대형 건설업체, 인천지역 건설사 및 자재업체 등이 참여하여 토목 분야, 건축분야, 환경 및 녹색성장 분야, 상·하수도 분야, 전력 분야 등의 신기술·신공법·신제품·시스템 등이 홍보·전시 됐으며, 우리 회사는 건설신기술인 SUPER WEDGE공법, 환경신기술인 KSMBR공법, 전력신기술 및 특허출원 공법(빔을 이용한 마이크로 파일 기초공법 및 이에 사용되는 파일 조립체) 등의 신기술 및 특허와 토목, 건축 및 플랜트 분야의 국

내·외 대표 시공실적들을 소개했다.

전시회 첫날 개막식 행사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및 건설관련 단체장 등 2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본 행사를 통하여 우리 회사의 첨단 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건축사업본부 상반기 V.E 토론회 개최



우리 회사 건축사업본부가 6월 26일 송파구 방이동 도시재생전시관에서 2009년 상반기 V.E(Value Engineering) 토론회를 개최했다. 건축사업본부 문보현 전무와 최영철 상무, 건축공사부장, 건축사업본부 내 일반건축 현장의 소장 및 공사·공무팀장 등 관련 임직원 40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현장 별 우수 V.E 사례 전파를 통해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문보현 전무는 "V.E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최고의 가치로서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다양한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토론해 나가면서 기술력을 보다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영철 상무는 "제안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V.E는 기술적 난이도뿐 아니라 적절한 현장적용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며 "이런 성과들이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토대가 됨을 인식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사업본부는 앞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V.E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 2회 한일 공동 심포지엄 참가 및 터널사진전 수상



우리 회사 토목사업본부 조현 상무와 토목기술부 박부성 차장은 낙석 및 산사태 방지 연구단에서 주관하는 '제 2회 사면재해저감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엄 2009'에 참가하여 'Analysis on the Causes for the Failure of Large-scale Rock Slope Composed of Metasedimentary Rocks in Korea'란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산사태 연구 기술의 향상 및 연구자의 교류와 정보의 교환을 목적으로 일본토목연구소에서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었으며 대학교수,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사면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그간의 연구성과와 실패사례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사면방재 기술발전에 기여했다.

제2회 터널기술 토론회 참가 및 터널사진전 수상



우리 회사 토목사업본부 조현 상무가 9월 10일 동부금융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회 터널기술 토론회 및 터널사진전'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패널로 참석한 조현 상무는 '도심지 대심도 터널기술'이란 주제로 '도심지 대심도 터널굴착공법 선정방법과 공법별 경제성 및 시공성에 대한 해외사례비교', '지하도로터널 출입부에 대한

시공관리 측면에서 요구되는 기술'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에서 계획되고 있는 각종 도심지 대심도 터널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술적인 항목들을 도출해냄으로써 터널관련 기술자, 건설관계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 시작에 앞서 실시된 터널사진전 시상식에서는 우리회사 토목기술부 김창수 과장이 '지하철 하부 15cm에 건설된 터널정거장' 작품을 출품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쌍용건설, 초고층 복합빌딩 개발 공동연구기관 선정

우리 회사는 최근 정부가 진행하는 초고층 복합빌딩 핵심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국토해양부가 2006년부터 추진하는 '건설교통 R&D 혁신 로드맵' 중 'VC-10 과제(미래가치 창출이 가능한 10대 과제)'에 참여하여 학계, 건설사, 설계사 등 23개의 유관 단체와 함께 2014년까지 초고층 복합빌딩 프로젝트의 핵심과제인 '비정형 통합설계 시스템 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당사의 고난이도 건축설계와 시공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연구결과를 얻어냄으로써 향후 발주되는 국내·외 건설공사 수주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흙막이 공법 외 2건」 특허 등록

6월 17일 흙막이공법(등록번호 제 10-09043975호)이 특허로 등록됐으며, 7월 28일, 29일에는 벽강관시공방법(등록번호 제 10-0910575호)과 매입앵커를 이용한 지하외벽의 합성옹벽 구축방법(등록번호 제 10-0910576호)이 특허로 등록됐다.

'흙막이공법'은 지반굴착시 발생하는 토압으로부터 굴착되는 공간을 지지하는 방법으로서 트러스 띠장을 이용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스트러트의 소요량을 줄임으로써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발명기술이다.

'벽강관시공방법'은 지그재깅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확하고 용이하게 벽강관을 시공하는 방법이며, 시공의 정확성 뿐만 아니라 연속적인 반복작업을 함으로써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발명 기술이다. '매입앵커를 이용한 지하외벽의 합성옹벽 구축방법'은 토목공사용으로만 사용하는 흙막이벽의 콘크리트 파일을 건축공사용 지하외벽과 합성하여 영구구조체로 활용할 수 있고, 시공이 용이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발명기술이다. S